

제5장 보수 ·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5.1 보수 · 보강 방안

5.2 유지관리 방안

제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5.1 보수·보강 방안

5.1.1 개요

모든 구조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성화, 염해, 알칼리 골재반응, 하중 및 지반조건의 변화, 구성재료의 특성, 환경조건, 유지관리의 상태 및 사용 용도의 변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노후화되어 가면서 구조물이 본래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활동, 즉 시설물의 안전점검, 진단, 보수·보강 조치, 교체, 자료측적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유지관리정책은 안전성의 고려, 차량 흐름에 관련한 고려, 경제성과 기술적인 고려 등의 3가지 개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1.2 보수·보강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기존자료의 검토를 통한 보수·보강 이력을 조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범위를 선정하며, 이에 따른 공법선정, 재료의 선정 등을 검토하여 보수·보강 긴급우선순위에 따른 보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I -5.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수립에 따른 검토사항

검 토 순 서	내 용
기존자료분석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 분석, 설계도서 조사
보수·보강 이력검토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보수·보강이력검토
보수·보강의 범위 선정	손상규모에 따른 보수여부 결정 구조물의 사용년한을 고려한 보수·보강 범위 산정
공법의 선정	구조물의 기능에 따른 공법선정 구조물의 주변환경 및 형식을 고려하여 공법선정 공법의 시공성 및 경제성 고려하여 결정
보수재료의 선정	기존의 재료와 물성이 같은 보수재 선택 구조물의 종류 및 환경조건 고려 구조물의 사용년한을 고려한 보수재 선택
보수시기 결정	구조적인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결함, 열화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5.1.3 우선순위 선정

조사된 손상 중에서 보수·보강 대상 부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시에 전체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수·보강작업을 위해 발생한 손상이 교량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직접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방안에는 기술하되, 공사비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I -5.2】 보수 · 보강 우선순위 결정 기준

구분	순위	내 용
단기	1순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는 손상 -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등 - 주요부재에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이 커 상태평가 기준 “d” 이하인 경우 - 철근부식에 의한 내하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부식 가능성이 큰 경우
중기	2순위	- 보조부재에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이 커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상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손상 - 즉각적인 보수는 요구되지 않지만 내구성, 기능성, 사용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장기	3순위	-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방치시 규모가 증대될 수 있는 손상 및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손상 - 발생된 손상이 경미하여, 유지관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1~3순위를 제외한 손상으로써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향후 발전상태에 따라 보수·보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손상 - 경미한 강재의 용접결함 - 기타 경미한 손상으로써 내구성 및 사용성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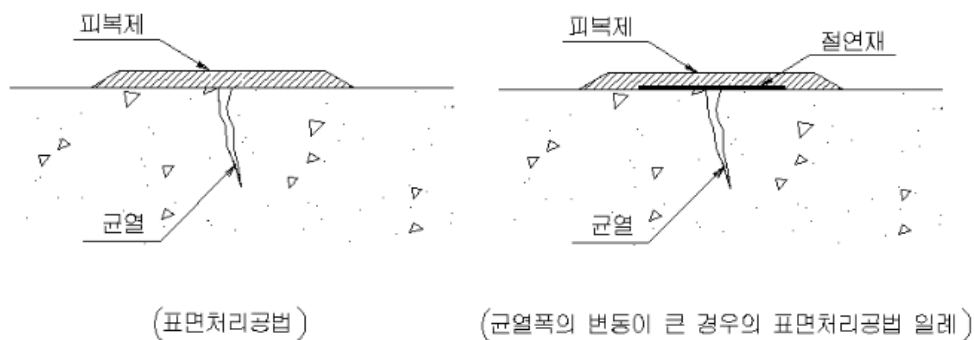
5.1.4 보수공법

5.1.4.1 표면처리공법

1) 적용 범위

· 대상교량에 발생한 폭 0.2mm 이하의 균열과 백태 등의 표면손상은 진전방지 및 미관을 고려한 표면처리 보수를 실시한다.

· 폭 0.2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에 대해 직접 그 균열의 표면을 피복하여 방수성, 내수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균열표면의 보수에 그치므로 본 공법 적용시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사용 재료>

- | | |
|---------------|----------------------|
| ① 폴리머시멘트 페이스트 | ③ 도막 탄성방수재 (아크릴 수지계) |
| ② 시멘트 필러 | ④ 도막 탄성방수재 (우레탄 수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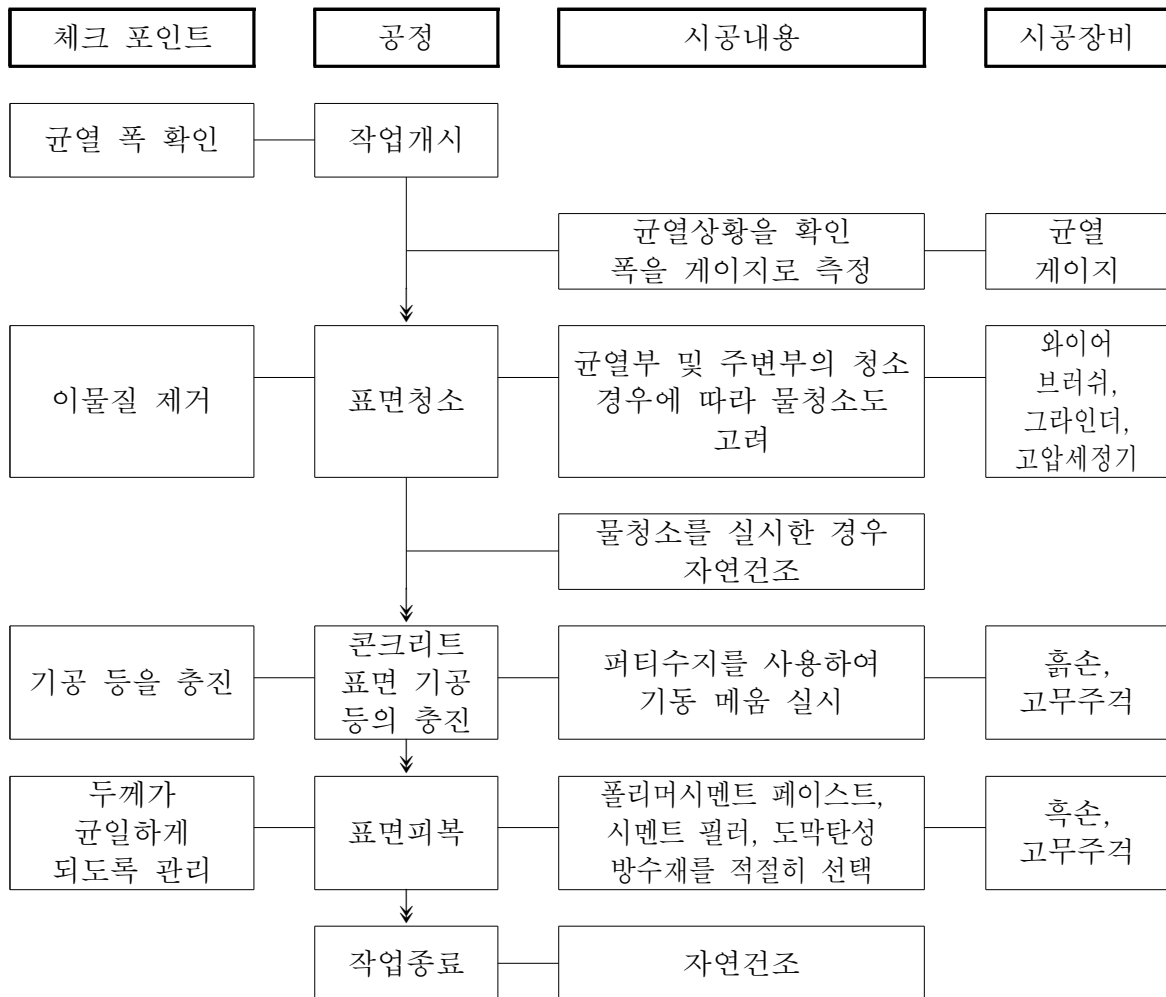
【그림 I-5.1】 표면처리공법 개요도

2) 시공시 주의사항

- 1) 기존의 도막 및 이물질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 2) 도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세정기(100~150kg/m²)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물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청소기를 사용한다.)
- 3)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한다.
- 4)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 5)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제품선정 후 제품 시방규정에 의한 표준 도포량 확인한다.
- 7) 직사광선, 바람 등이 현저한 장소에서 시공할 때는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동절기 시공 시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9) 혼화재는 사용 전에 수회 흔들어야 한다.
- 10) 시공완료 후 충분히 건조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흐름도



【그림 I -5.2】 표면처리공법 시공 흐름도

5.1.4.2 주입보수공법

1) 개요

균열(0.3mm이상)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보수는 균열 폭과 균열깊이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주입속도, 점도 및 양생 속도를 갖는 수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지주입공법의 종류

균열 주입공법에는 압입식과 흡입식이 있다. 압입식 주입공법에는 수동식, 기계식, 저압·저속식 주입 및 자동주입식 기계주입공법이 있으며, 이 중 저압·저속식 주입은 주입량 파악이 쉽고 균열 구석까지 주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유리하다.

【표 I-5.3】 수지주입공법의 종류

압입식 공법	흡입식 공법
· 수동식 주입 : 인력 · 기계식 주입 : 공기압식, 유압식, 기어식 · 저압·저속식 주입 : 고무, 용수철, 공기 등의 압력 · 자동주입식 기계주입 : 자동주입기	· 균열의 양단에 흡기구와 충전재 주입구를 설치하여, 흡입펌프로 충전재를 흡입주입

【표 I-5.4】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도

형 상	점도(20℃, cp)	주입 가능한 균열 폭
액 상	저점도	500±200
	고점도	1,500±500
Gel 상태	6,000±1,000	0.5~5.0mm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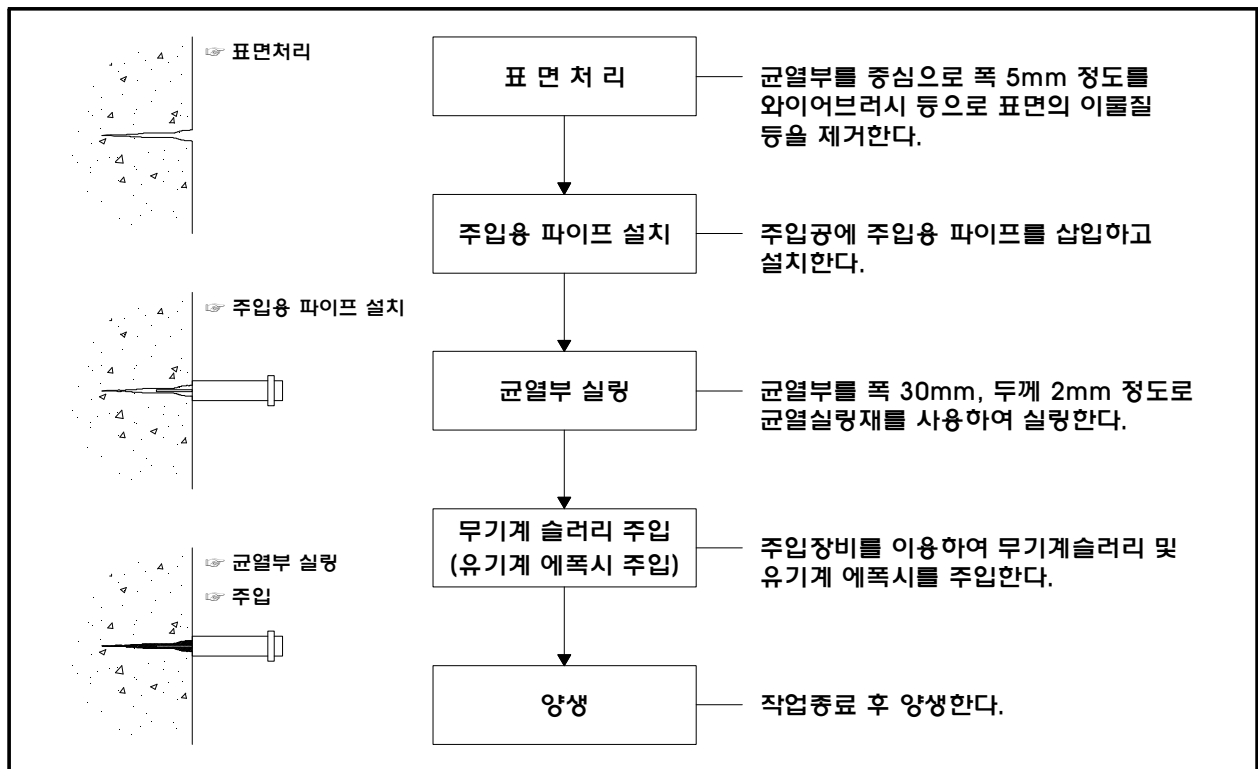
【표 I-5.5】 균열폭에 따른 주입파이프/패커의 간격

균열 폭(mm)	주입파이프/패커간격(mm)	비고
0.3이하	50~100	
0.3~0.5	100~200	
0.5~1.0	150~250	
1.0이상	200~300	

【표 I-5.6】 에폭시계 수지의 규격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실링 및 퍼티용 규격치	주입용 규격치
비 중	KS M 3015	20℃ 7일간	1.7±0.2	1.2±0.2
사용가능시간	온도상승법	20℃	60이상	30이상
점 도	JIS K 6838	"	-	5,000이하
압축항복강도	KS M 3015	20℃ 7일간	6.0이상	6.0이상
휨강도	"	"	3.5이상	4.0이상
인장강도	"	"	2.0이상	2.0이상
압축탄성계수	ASTM D 695	"	0.1~0.6	0.1~0.6
인장전단강도	KS M 3722	"	100이상	100이상
충격강도	KS M 3015	"	0.15이상	0.3이상
경 도	ASTM D 2240	"	80이상	80이상

3) 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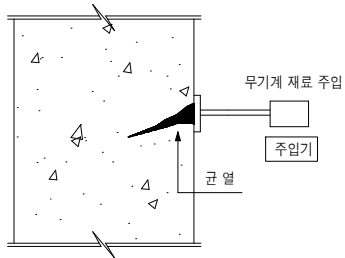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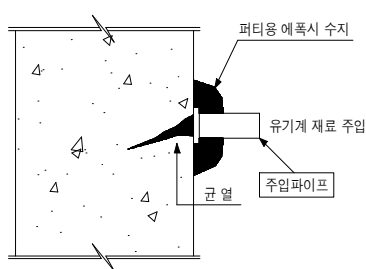


【그림 I-5.3】 균열 보수공법 개요도

4) 시공시 주의사항

- 1) 대기온도가 10~30℃일 때 시공 가능하며, 우천시는 중지한다.
- 2)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하여 균열 주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3) 사용하는 에폭시계 수지는 적당한 루트마다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 4) 썰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 5) 주입된 에폭시계 수지가 경화한 후에는 주입 파이프를 절단하고 썰링재와 함께 그라인더로 갈아 평탄하게 표면처리 한다.

【표 I -5.7】 주입공법 공법비교안

구 분	폴리머 슬러리시멘트 주입공법	에폭시 주입공법
개요도		
공법 개요	균열부위를 커팅하고 균열부를 썰링한 후에 무기계재료인 폴리머 슬러리시멘트를 주입기를 통하여 주입하는 공법	균열부위를 커팅하고 균열부를 썰링한 후에 유기계 재료인 에폭시를 주입기를 통하여 주입하는 공법
시공 방법	표면처리→U.V컷팅→주입기설치→균열부 썰링→폴리머슬러리시멘트주입→단면복구	표면처리→U.V컷팅→주입기설치→균열부 썰링→에폭시주입→단면복구
특징	-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재균열 발생우려 없음 - 균열보수의 일괄적인 공정에 대한 재료 및 시방확보 - 콘크리트 모체와 동등한 탄성계수, 열팽창 계수, 투수성 확보 - 수용성인 무기계 재료의 사용으로 습윤지역 시공이 가능함 - 보통형식의 것은 경화시간이 낮고 공기가 길어짐 - 공정이 다소 복잡하여 시공전문가필요 - 유기계에 비해 접착강도 떨어짐	- 인장, 휨강도가 우수함 - 건조한 환경에 유리함 - 경화시간이 빠름 - 시공실적 다수 -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접착력이 떨어지며 품질관리가 어려움 - 주입압력이 크면 균열이 확대되므로 주의 - 탄성계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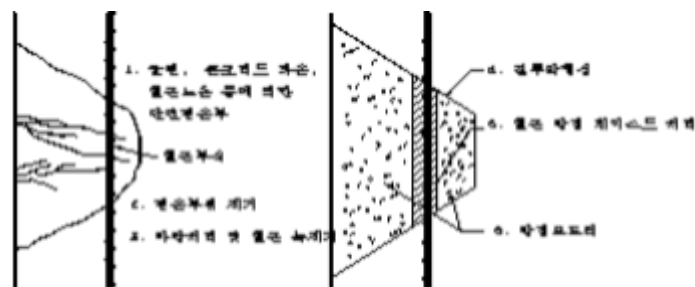
5.1.4.3 단면보수(철근방청)공법

1) 적용 범위

· 외관조사 결과, 바닥판, 교대의 단면손상 등이 조사되었다. 이는 시공시의 다짐불량, 피복두께 부족, 공용기간의 증가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분상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 차원의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공법은 상기 단면 손상부에 대한 보수공법으로, 현재 조사된 부위의 불건전 콘크리트와 기타 이물질 부위를 제거하고, 부식이 발생된 철근은 녹을 제거하고 방청 처리를 한 후 방청모르터를 도포하는 순서로 보수시공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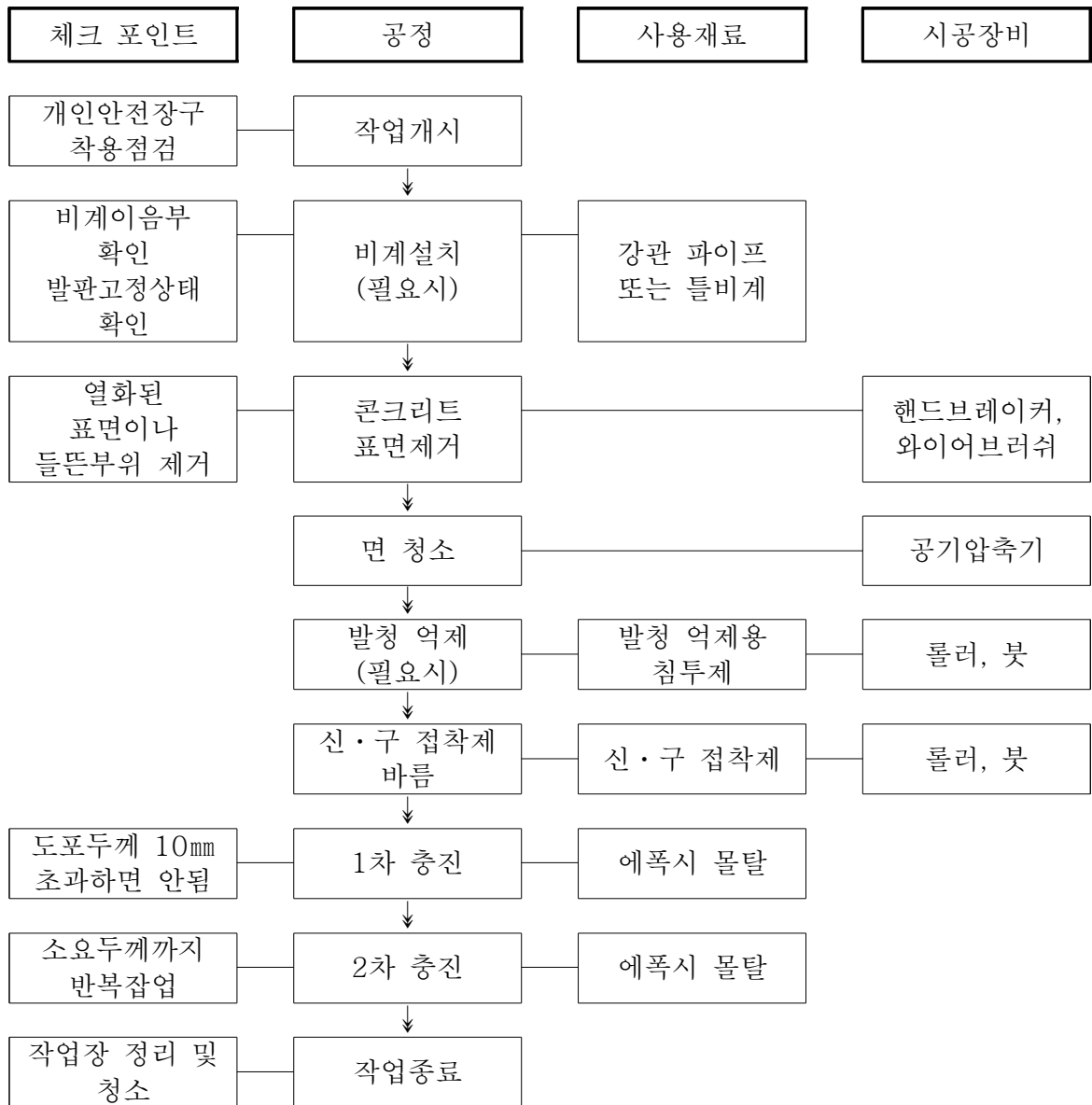
2) 보수방법



【그림 I-5.4】 단면보수공법 개요도

3)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 1)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부위 및 탄산화 부분을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2) 콘크리트 표면제거 시 파편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보호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임한다.
- 3) 콘크리트 표면제거 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고압 세척한다.
- 4) 콘크리트 제거 후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 5) 기온이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6) 철근 부식의 원인이 되는 전해질을 제거하고 공극을 메워 콘크리트 밀도증가로 산소와 물이 차단되도록 방청 억제용 침투제를 도포한다.
- 7) 신·구재료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구 접착제를 도포한다.
- 8) 비가 예상되거나 습도가 80%이상일 경우,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9) 기존 콘크리트 탈락부위에 1차 충진은 에폭시 몰탈로 실시한다.
- 10) 에폭시몰탈 시공시 미장두께는 10mm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 11) 기온이 30℃ 이하에서는 1차 충진 후 최소 2시간 경과 후에 2차 충진을 실시한다.
- 12) 에폭시몰탈은 상온에서 배합후 시간이 경과하면 접착력 및 강도가 저하되므로 작업종료 후 남은 것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 13) 에폭시 몰탈의 혼합량은 중량비를 기준으로 저울을 이용하여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그림 I -5.5】 단면보수공법 시공 흐름도

5.1.4.4 아스팔트 패칭공법

1)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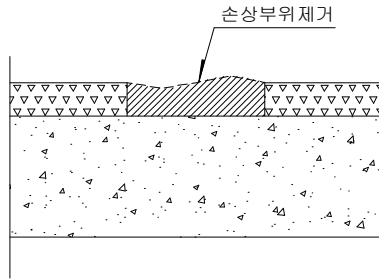
1) 교면포장에 발생한 손상 중 국부적인 아스콘 탈락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이 더욱 커지는 특성이 있고 통행차량의 주행성 저하와 교량에 충격원인을 제공하므로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손상부위에 국부적으로 아스팔트 패칭 공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면 재포장 하는 방법이 있다.

2) 부분적인 아스팔트 포장의 보수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보수의 긴급성에 따라 가열혼합식과 상온혼합식으로 나누며 보수효과가 좋은 가열혼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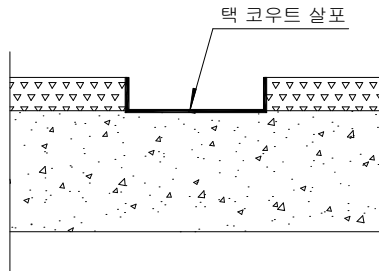
3) 패칭보수 완료후 신·구 아스콘 접속부에서 체수가 될수 있으므로 접속부의 마무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포장의 절취는 상판면까지 행하고 택코우트 및 도막방수는 상판 뿐만아니라 측면까지 잘 도포한다. 아스팔트 패칭 보수는 작업의 효율성 및 보수효과를 위해 1㎡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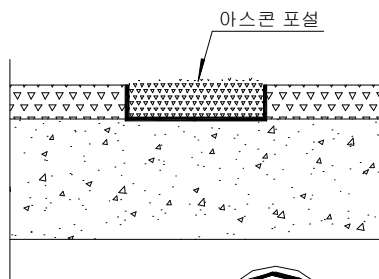
- 1) 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 2) 제거부분을 양호한 포장면과 30cm 정도 겹쳐지게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 3) 로드컷터기를 사용하여 차량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직각 절단하고 브레이커로 파쇄한다.
- 4) 절삭구간은 바브켓을 이용하여 부산물을 모두 제거하고 특히 절삭면에 분리되어 있는 잔재는 인력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가열, 건조시킨다.
- 5) 바닥면과 옆면에 수동 살포기 및 인력을 이용하여 택코팅을 실시한다.
- 6)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 7) 탠덤 롤러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실시한다.
- 8) 패칭부 가장자리를 유제 아스팔트로 실링하여 신·구 아스콘 접속을 견고히 함으로 우수의 침투를 예방한다.
- 9) 이음부 포설 시 유제가 많이 포설되었을 경우에는 모래를 뿌려 제거한다.
- 10) 포장보수 완료 후 시공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 11) 교통통제 시설 철거 후 교통개방 시 표면온도는 50℃이하가 되도록 한다.
- 12) 절삭된 폐아스팔트는 지정장소에 모아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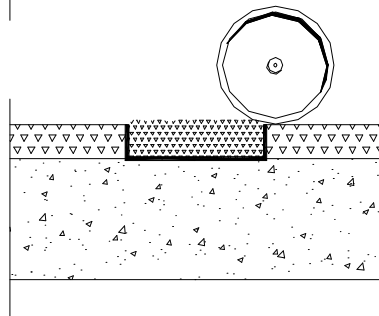
1. 파손된 부분보다 30cm 정도 크게 절삭기를 이용하여 절삭한다.
2. 제거하는 부분은 수직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상을 만든다.
3.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해야 한다.
4. 포장의 절단은 면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먼지 및 부스러기를 깨끗이 청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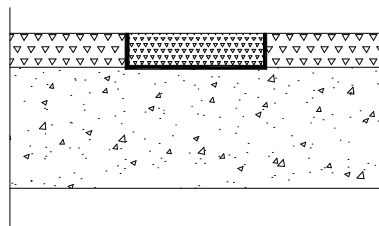
1. 급속 경화형 커트백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택 코우팅을 실시한다.
2. 택 코우트는 적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험 살포를 통하여 디스트 리뷰터의 속도와 살포량의 관계를 파악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절삭된 면에도 택 코우트를 실시하여 기존 포장면과의 접착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1.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채운다.
2. 가열 아스팔트를 포설할 경우에는 온도가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인력 포설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신속히 작업해야 한다.
4. 균일한 밀도 및 두께가 되도록 신중히 포설한다.
5. 포설시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유화 아스팔트나 커트백 아스팔트를 사용한 플랜트 배합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다.



1. 포설 후 가능한 빨리 다짐을 하며, 다짐을 하기 전에 표면을 점검하고 불균일한 표면이나 요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2. 다짐 작업은 보수 규모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작업의 규모가 작은 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진동 컴팩터 또는 1t 진동 롤러가 적합하며 작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8~12t사이의 진동 롤러가 적합하다.



1. 보수 부위의 종단평탄성을 비롯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직선자 또는 스트링 라인(String line)을 사용한다.

【그림 I-5.6】 아스팔트 패칭공법 시공 개요도

5.1.4.5 아스팔트 실링보수

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포장 도로는 지형, 기후 그리고 교통량에 따라 엄격하게 설계되지만 차량 운하중의 반복작용과,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팽창 작용 및 기층의 변화상태에 의해 설계에 관계없이 점차 노후화 하기 시작하며 특히, 아스팔트에 포함된 가소성분, 아스팔트 성분은 산화작용으로 경화되며 교통량에 따른 중압과 온도변화로 탄성력이 작아져 균열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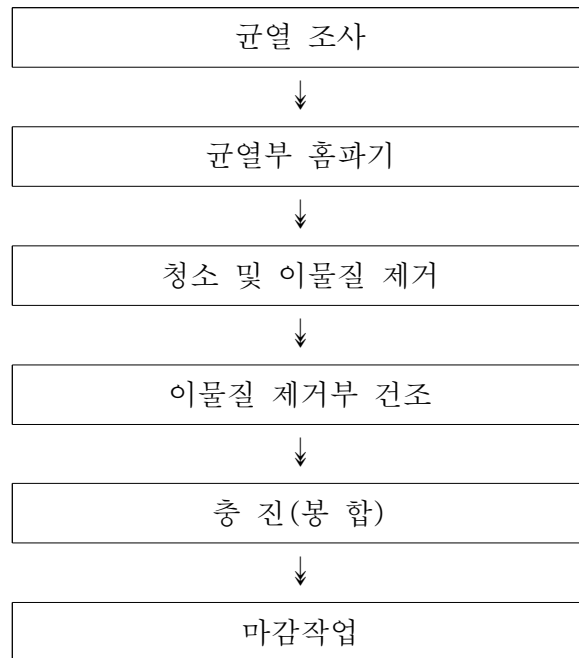
2) 단순 균열 부분에 적합하여 시공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며 균열이 폭이 좁고 깊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물질이 적게 침투되어 있는 균열에 적합하다.

3) 발달된 균열의 진행방향에 따라 홈파기 작업을 하여 침투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며, 시공면 접착부의 접착 강도를 증진시킬수 있어 균열의 폭이 크고 깊이가 깊은 균열에 적합하다.

4) 큰 성상 균열 또는 Cement Concrete 포장 위의 Asphalt 층에 보이는 균열 등에 혼합물을 채워서 보수하는 공법

5) 균열부의 먼지나 흙은 제거하고 파손 부분을 제거한 후 Asphalt Mortar, Slurry, 혼합물, Brown Asphalt, 주입줄눈재, Guss Asphalt 등으로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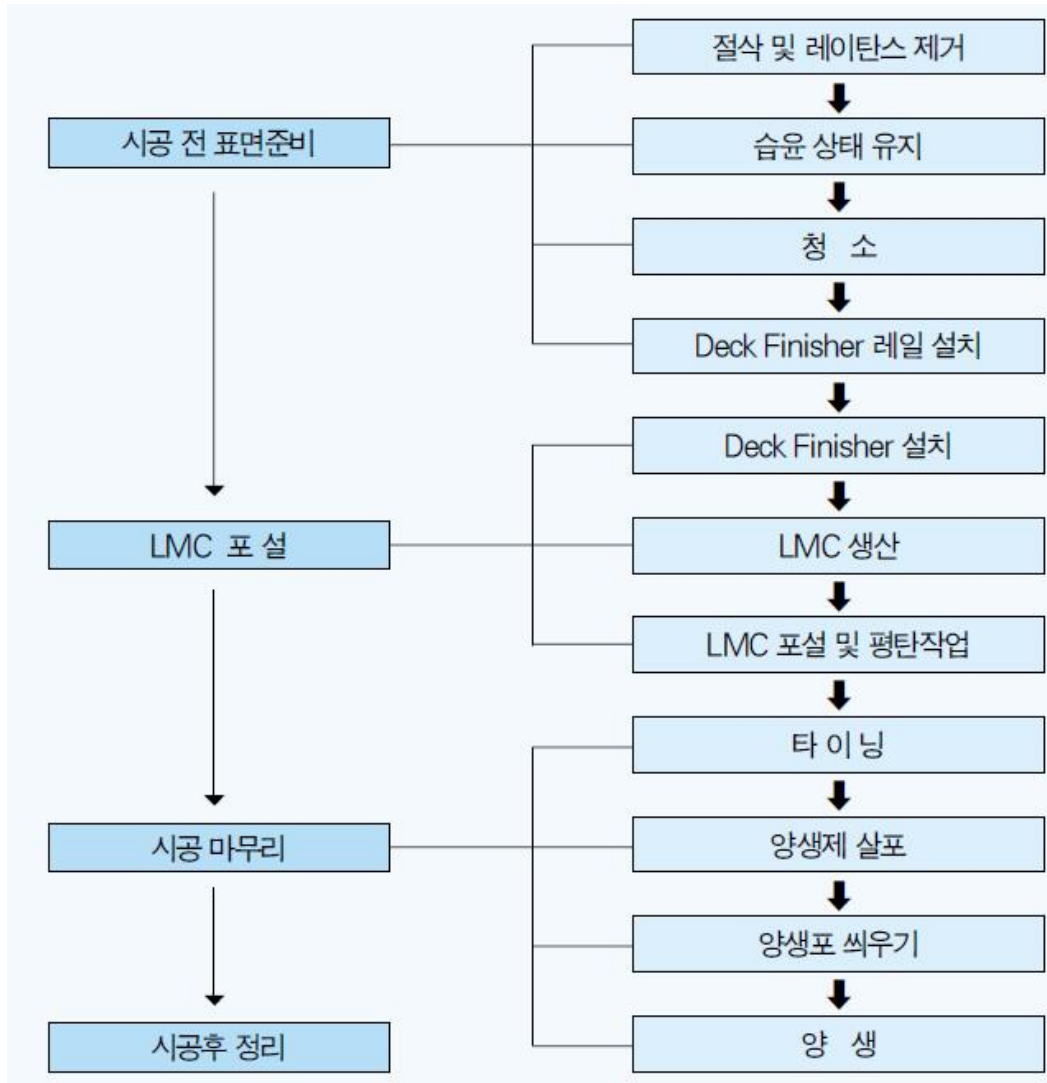
2) 시공흐름도



【그림 I-5.7】 아스팔트 균열보수공법 시공 흐름도

5.1.4.6 콘크리트 채포장(LMC)

1) 시공절차



【그림 I -5.8】 콘크리트 채포장(LMC) 시공절차

2) 시공방법

1) 교면준비

- ㉠ 교면절삭
- ㉡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의 표면을 절삭 깊이 2mm내외로 요철이 생기게 절삭한다.
- ㉢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와 접하는 방호벽이나 중분대 기초 등과 같은 측벽은 치핑(Chipping)하여 거친 면으로 만든다.
- ㉣ 부착력을 저해하는 레이탄스, 들뜬 콘크리트 부스러기, 오일, 흡착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 그라인딩 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 분말은 압축공기로 완전히 제거한다.

㉠ 습윤상태 유지

㉢ 건조한 슬래브 콘크리트로 인한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수량 흡수가 방지되도록, 교면 절삭 후 텅마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 이러한 교면 습윤상태는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 최소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교면청소

㉤ 스라인딩 작업, 교면 습윤 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비닐을 덮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이러한 교면청소는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교면요철, 홀(Hole) 등과 같은 파인 홈에 고여있는 물은 압축공기(Air Compressor)로 제거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장비 레일설치

㉧ 레일은 마무리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레일 받침대는 좌우, 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 후에는 4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배합 및 생산

㉠ 배합

㉡ 배합기준 :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휨강도(f_{28})	KS F 2407,2408	kg/cm ²	45 이상
압축강도(f_{28})	KS F 2405	kg/cm ²	270 이상
단위 Latex량		단위시멘트 중량의 %	15
단위 수량		kg/cm ²	150 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13
슬럼프 범위	KS F 2403	cm	10~15
공기량 범위	KS F 2409	%	3~6

【그림 I -5.9】 교면포장용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 배합기준

- ㉠ 시방 배합 :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한다.
- ㉡ 협장 배합 : 시공자는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에 사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생산
- ㉣ 믹스에 재료의 투입순서는 골재, 시멘트, 물, Latex순으로 연속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 믹싱시간(Mixing Time)은 소용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믹스로부터 배출된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의 구성 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장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 ㉦ 믹스의 용량은 표면에 Latex Film이 생기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고 마무리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 ㉧ 믹스의 배합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설 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그 허용오차는 1%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 포설 · 마무리

- ㉠ 브루밍(Brooming) 작업 -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 · 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를 데크브러쉬(Deck Brush)로 쓸어 교면에 모르타르(Mortar)로 얹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브루밍은 교면뿐만 아니라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가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되어야 한다.
- ㉢ 브루밍한 표면은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 ㉣ 브루밍 후 남은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모르타르가 빠진)는 포장재표에 혼합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 포설 및 마무리
- ㉥ 포설하기 전에 교면이 깨끗하고,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 ㉧ 포설 두께는 최소 40mm 이상이어야 하고, 포설높이는 계획고보다 3~10mm높게 포설한 다음 진동 다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 모서리 부, 측벽부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포설 양쪽 단부, 국부적인 보수 등은 흙손으로 인력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⑫ Latex 혼합개질콘크리트 마무리 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중·횡계획고와 내구적인 표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양생

① 피막양생제 살포

②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1.5 L/m²(원액농도 0.105kg/m²) 이상으로 한다.

③ 포설마무리 후 즉시 또는 타이닝이 끝난 즉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④ 양생제는 전 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⑤ 습윤양생

⑥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표면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성형되면 즉시 깨고사고, 고르게 물로 축인 நீ마를 덮고, 끈이어 비닐을 깔아 48시간 동안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13℃이하일 경우는 감독원은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⑧ 습윤양생이 끝나면 양생포를 걷어내고 72시간 이상 기건양생을 하여야 한다.

⑨ 타이닝

①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되면 즉시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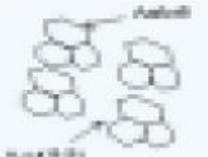
5) 품질관리

① 라텍스 - 라텍스의 고형분 함유량, 입도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LMC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타디엔 함유량(%)	고형분 함유량(%)	pH	응고량(%)	표면장력 (dyne/cm)	입자크기 (Å)	동결융해 안정성
34±1.5	46~53	9.5~11	0.1이하	40이하	1,800~ 2,100	응고량 0.1% 이하

【그림 I-5.10】 라텍스의 품질기준

6) 기존 교면포장 공법과의 비교

구분		LMC 포장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고
조직구성					
설치단면					
경제성	초기 투자비	49,036원/㎡	46,941원/㎡	16,345원/㎡	
	유지관리비	-	56,700원/㎡	-	
	계	49,036원/㎡	103,641원/㎡	16,345원/㎡	제압비 포함
장 · 단점		· 강도 및 밀도증진 · 교량 바닥판 단면력 증대 · 균열 억제 · 방수효과 탁월 · 유지관리 양호 · 국내 시공 실적이 적다. · 시공이 다소 번거로움 (바닥판 양생후 별도타설) · 초기투자비 다소 고가	· 상판의 노후화 징후파악 곤란 · 교량 바닥판 보호 · 방수층 파손시 상판에 염화물 침투로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열화 현상 발생 · 방수효과 보통(재 포장시 교통차단 시간이 길어 방수층 시공 곤란) · 유지관리 불량 · 국내 대다수교량에 시공 · 시공성 양호 · 초기투자비 보통	· 교량 바닥판 단면력증대 · 마모층 면의 균열발생시 염화물 침투로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 열화현상 발생 · 방수 효과 불량 · 유지관리 불량 · 일부구간 시공(중부, 호남고속도로) · 시공성 양호(바닥판 콘크리트와 동시 타설) · 평탄성 불량 · 초기투자비 매우 저렴	

※ 아스팔트 교면포장 유지관리비는 20년 동안 7년에 1회씩 총 3회 덧씌우기 가정

【그림 I-5.11】 교면포장 공법 비교

5.2 유지관리 방안

5.2.1 방지관리 방안 개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현상을 파악하여 이상 및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유지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정한다.
- ② 시설물의 상태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 ③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예측한다.
- ④ 보수, 보강, 개축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⑤ 점검결과의 전산관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최적 분배가 가능하게 한다.
- ⑥ 축적된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설계, 시공될 교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설물의 현상을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악영향을 미칠 손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축적된 점검자료를 분석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해 가는 시설물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지관리면에서 본 설계, 시공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파악되어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시공을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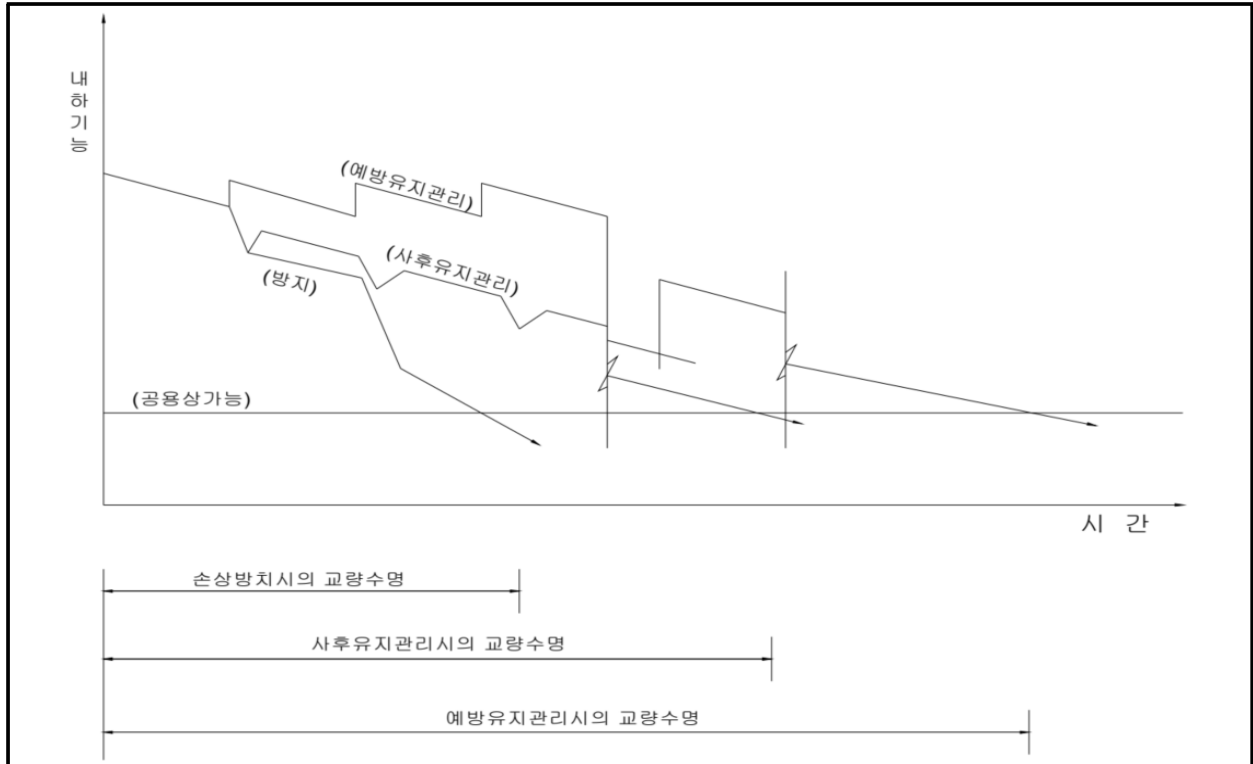
5.2.2 유지관리의 종류

유지관리는 사후 유지관리와 예방 유지관리가 있다. 사후 유지관리는 문제가 발생된 후, 보수 또는 보강하는 방식이고, 예방 유지관리는 문제발생의 징후 또는 그 원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보통 사후 유지관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진단기술 및 장비가 발달되어 예방 유지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토목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성, 내구성, 안전성 등의 기능을 확보해야 하므로 손상 초기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는 예방 유지관리 방식보다 경제적이고 또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설물은 건설된 후 시간경과에 따라 성능이 저하가 진행되지만 이외에도 설계시공시의 불량에

의한 결함, 외력, 환경변화 등에 의한 손상이 추가되면 기능저하가 가속된다. 이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I -5.12】 시설물의 시간경과에 따른 내하성능 저하

가. 방치하는 방법

손상을 방치하면 기능저하에 의한 손상이 더욱 진행되고 또는 다른 손상을 유발시키는 등 기능저하가 가속되어 결국 공용기능을 상실한다.

나. 손상진행 후에 보수하는 방법

손상이 경미하게 진행한 시점에 보수하여 기능회복을 도모하면 사용년수를 연장할 수 있지만 손상 진행이 현저하면 기능회복이 어렵게 되고 기능회복 비용이 커진다.

다. 손상초기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

손상의 초기단계에 조치를 취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교량은 항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5.2.3 유지관리 업무 및 흐름

가. 자료 관리

자료 관리는 대상구조물 처해있는 상황을 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설계도서 구조물대장 보수·보강대장, 사고이력 등의 자료를 정리 및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자료는 구조물의 점검, 보수·보강 시 마다 계속 증가하므로 수정이 편리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관련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면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유지관리 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설계도서(시공 및 보수도면, 구조계산서등)
-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사진 및 시험결과 등)
- 시설물관리대장(보수·보강이력 등)
- 사고기록, 점검이력(상태 및 안전성평가 기록)

나. 일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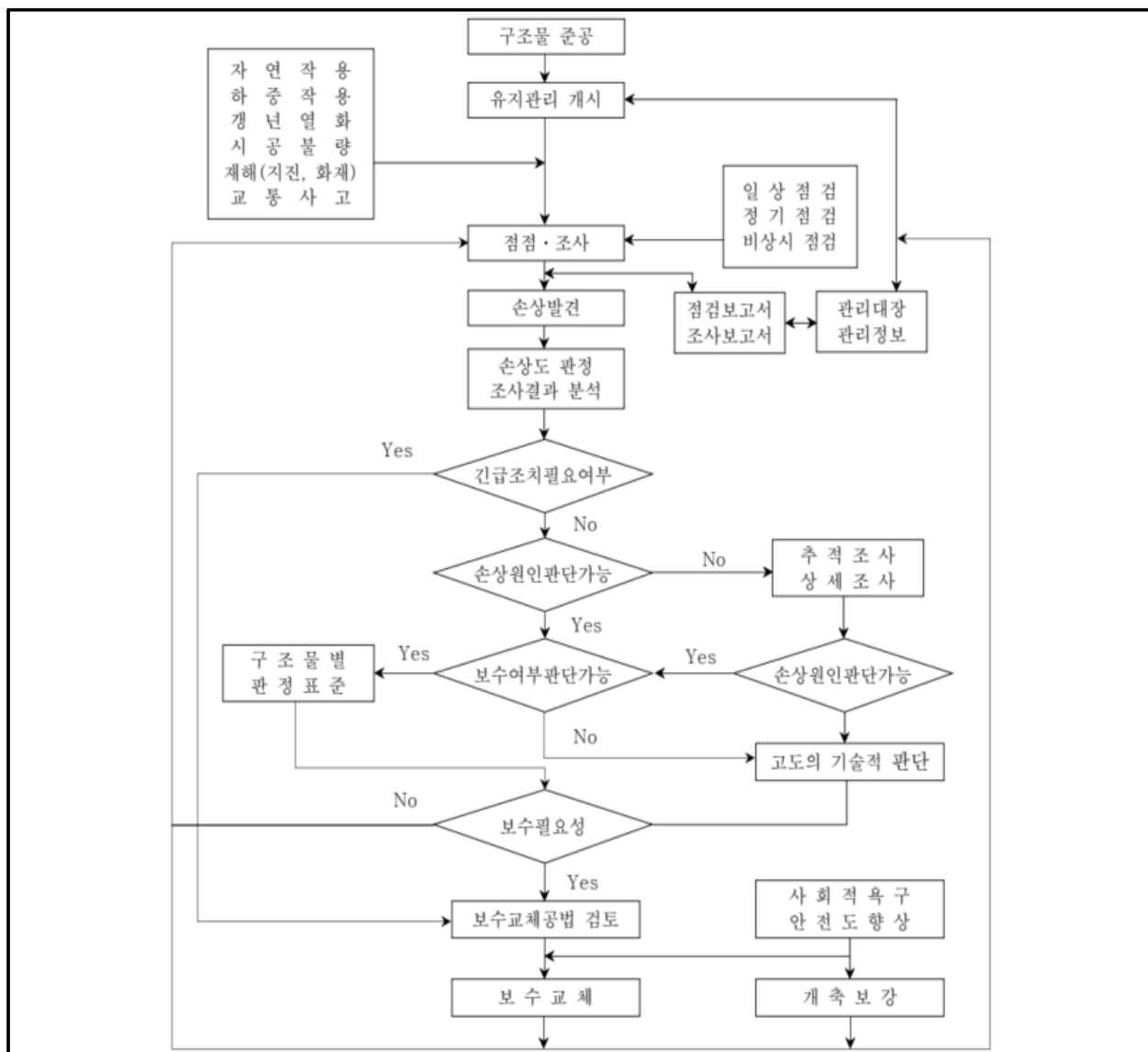
일상 관리는 구조물의 내구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소모성 물품의 교환 부착물의 정비 등 간단한 작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 점검

점검은 구조물의 현상을 파악하여 이상 및 손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유지관리상 필요한 손상과 이상의 정도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도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초기점검, 긴급점검으로 나누며, 점검결과 이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보수·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위의 조사를 통하여 유지관리 담당자가 대상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라. 보수 및 보강

점검을 통하여 손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수·보강 또는 신설이나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란 손상된 부위를 고쳐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며, 보강은 현 상태의 손상방지는 물론 구조적 내하력 및 지지력을 현 상태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림 I -5.13】 유지관리 흐름도

